

A group of five young people, three men and two women, are gathered around a large map. They are all smiling and looking at the map with interest. They are dressed in business attire, including shirts, sweaters, and a suit. The background is a light, neutral color, and the overall atmosphere is positive and collaborative.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제안

들어가며

한춘기 교수는 종교개혁시대의 교육에 영향을 준 사람들로 루터, 멜란히톤, 츠빙글리, 칼빈 등을 들었다. 특히 루터는 당시 교회와 사회의 무지에 탄식하면서 논문과 설교를 통하여 일반 백성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두었는데, 남편 어린이 모두를 위한 교육, 즉 보편교육을 제창하며 국가가 교육에 대한 모든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지 벡크호프트는 칼빈을 초등교육의 아버지이자 무상교육 제도의 창시자로 소개한다. 칼빈은 집나지움과 아카데미로 나눌 수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집나지움은 16세까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고, 아카데미는 대학교의 기능을 하였다.

교회의 권위 대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한 종교개혁의 신학적 입장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의 중심교리는 기독교교육의 강조로 이어졌다. 종교개혁자들은 교육을 강조했고, 이러한 교육은 다시 종교개혁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학교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학교는 종교교육을 공교육의 장에서 밀어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 특히 청소년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그 원인 분석과 대책 또한 다양하다. 이는 비단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톨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공교육이 제공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가정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세 가지 행동특성에 주목하고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에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다. 존 스토틀은 이미 1958년에 많은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정하지만, 교회에는 적대적이라고 기술했다. 은준관은 이것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세대'의 등장으로 묘사하면서, "교회도, 종교적 냄새가 나는 것도 싫다.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영적으로 살겠다"는 소위 '가난한 신자'(안 나가를 거꾸로 읽은 것), '노마드 신자'(유목민처럼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이들), '스타벅스 신자'(교회 근처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보는 이들) 등으로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정리했다.

둘째, 청소년들은 교회가 자신의 인생 문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상화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 하는 이유를 교회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했다. 김희자는 1997년의 갤럽조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51.4%가 종교단체가 인생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한다고 기록했다. 결국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교회가 자신의 인생 문제에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공부와 신앙, 취미와 신앙에 대해 갈등한다. 폴 마샬은 지질학 박사 과정 중에도 밤낮으로 지질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만큼 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걱정과 자신의 신앙 관심이 자신의 전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고 고백했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갈등만 조장할 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다.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반응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청소년기의 발달론적 특징을 살핀 후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찾고자 한다.



박상호 ACTS 기독교교육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교육 박사과정에 있다.

청소년의 신앙발달론적 특징

신앙발달이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바르게 알고, 믿고, 생활하는지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영적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때때로 종교적 가르침에 의문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부모님의 종교적 신념을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성과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한 의문은 청소년들의 신앙 정체성, 안정감을 방해한다. 그 결과 신앙과 삶을 분리하거나 교회 혹은 신앙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1. 인지적 발달

청소년들은 추상적, 철학적 사고가 가능하고,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하여 신앙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강희찬은 청소년들에게 신 혹은 궁극자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다. 또한 타 종교와 타 이념을 만나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는 개별적·반성적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껴 교회를 떠나기도 하며, 다른 종교집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한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의 교육적 신념에 따라 10대 초반까지는 교회에 다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68년 기아로 죽어가던 어린아이 두 명의 사진이 Life 라는 잡지에 실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후 주일 학교 목사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잡스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악 또는 부당함에 대한 반감을 처리할 수 없어 당황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파울러에 따르면 이 단계의 신앙은 문자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고 진부한 신앙교육에 환멸을 느낀다. 또한 이 시기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포레 동료가 다른 신앙적 가치를 지닌다면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조발그니는 주입식 교육이 신앙교육의 문제이며,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지구적 신앙교육은 청소년의 신앙 발달단계와 맞지 않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정서적 발달

신앙의 발달단계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Fritz Oser, Bruce Powers, Thomas Droege, John Weserhoff III 등이 다양한 신앙 발달단계를 제안했다. 청소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중진 추구, 또래 신앙인들의 영향, 믿는 권위에 의존, 수동적 공동체 속에서 활동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은규는 신앙의 성장을 지속적인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제임스 로더는 신앙은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누구나 정서적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 한다.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이 마치 부재한 것처럼, 아니면 문을 퐁퐁 걸어 잠그고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나치의 통치를 경험한 마틴 부버는 이 처참한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던지며 하나님은 더욱 더 베일에 감추어지고 우리로부터 멀어져 갔다고 기록했다. 청소년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월호나 여러 사고로 죽는지 궁금해 한다. 이들은 정서적 갈등, 고통,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상황들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3. 도덕적 발달

토마스 그룹은 신앙이 근본적으로 정의와 도덕을 요구한다고 했고, 존 스토틀는 기독교 윤리의 정수인 산상수훈을 해설하면서 세 가지 질문(산상수훈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절한가, 그 기준들은 도달 가능한 것인가)을 던지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였다. 제석

복은 교육의 주요한 교육목표 중 하나로 도덕발달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교육에서 도덕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대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들은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 면에서 신앙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공교육은 이러한 청소년을 도울 수 없다. 교회와 가정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만 힘들어 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녀 양육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김동기는 아버지가 종교성을 지속시키는 모델 역할이나 종교 거부 모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음을, 파커 파머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조건도 만들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앙교육을 위해 부모와 교사는 자녀 또는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 파울러 프레이리의 주장처럼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 성찰과 행동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먼저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폴 히버트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명시적인 믿음이 변형되어 복음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는 데 충분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종종 똑같은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인 믿음 밑에는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방식과 그들의 사고의 범주 및 논리를 좌우하는 더 깊은 문화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일은 행위, 믿음,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세계관 등 세 가지 차원에서 회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 세대는 자기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서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알버트 윌티스와 마이클 고히는 “세계관의 정립은 언제나 인간적 차원의 성찰과 구축 작업이 될 것이다. 세계관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데 비해, 세계관은 교회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려고 복음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인간적 시도일 뿐”이라고 했다. 신국원은 성경의 세계관은 본래 이야기 형태인데 그동안 자칫 철학 이론처럼 굳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기에 다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철학적 딱딱함이 아닌, 삶을 성찰하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대화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까? 이는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때 가능하다. 청소년 신앙교육의 이슈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교회에 대한 거부는 신앙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표준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일 수 있다. 따라서 권위적인 가르침보다는 스스로 신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나눔 중심의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끊임없는 성찰과 행동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목회자들은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어휘와 고민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동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질문을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설교나 공과공부와 같은 접근이 아닌 비판적 대화로 청소년들이 직접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